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2009.12, pp.125~133

파금의 작품에 나타난 조선*

권혁물(길림대 한국어학과 부교수)

차례

1. 서론

2. 본론

1) 파금과 조선과의 인연

2) 파금의 조선에 관한 창작물

3. 결론

1. 서론

중국 현대문학과 조선(한국)의 현대문학은 그 출발기에 여러 모로 닮아 있었지만 그 뒤로 오면서 점차 미묘한 양상을 보였다. 단독정부의 출범, 그리고 6·25를 거쳐 중국과 조선의 문학은 구 소련이라는 진원지의 강한 파장 속에 들게 되었고 냉전의 다른 진영에 편입된 한국의 상황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말하자면 중국의 문학은 한반도의 북부와 많은 면에서 상관성을 보였고 남부와는 상이한 면모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 북부의 “동지 겸 형제(同志加兄弟)”라는 관계는 문학의 여러 장르를 통하여 반영되었다. 본고에서는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인 파금의 창작을 통하여 중국과 한반도 북부 조선과의 문학적 상관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 이 논문은 吉林大學校博士科研經費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중국 현대문학사와 당대 문단의 거장으로 공인 받는 파금(巴金, 본명은 李堯棠, 1904~2005)은 1928년 프랑스에서 창작한 처녀작 「멸망(滅亡)」을 필두로 문학의 여러 장르를 넘나들면서 왕성한 창작활동을 한 다산의 작가이다. 20여 편에 달하는 중·장편소설, 70여 편의 단편소설, 그리고 많은 산문, 수필 및 30여 종류의 외국문학작품에 대한 번역은 그로 하여금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의 한 사람이라는 명분에 추호의 손색이 없도록 했다. 따라서 파금에 대한 연구는 여러 시각에서 이루어졌던바, 여러 가지 방법론에 의거한 작가론, 작품론으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그 연구 성과들을 살펴본다면 한 가지 아쉬운 면이 발견되는데, 바로 파금 본인이 여러 글에서 언급했던 조선과 조선인에 관한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연구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본고는 바로 상술한 점에 착안하여, 파금과 조선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작업의 범위는 파금이 조선인과 교류했던 사실을 밝히고, 나아가서 파금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조선 또는 조선인의 형상을 살펴보는 데 한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이 파금 작품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연구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본고의 목적이다.

2. 본론

1) 파금과 조선과의 인연

파금은 1904년 11월 25일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 리(李)씨 가문의 봉건관료 가정에서 태어났다. 일찍 부모를 여읜 파금은 봉건적 피라미드식의 등급제도가 삼엄한 대 가문에서 민감하게 그 억압을 감수했다. 만형의 조우에서 비극을 보았던 파금은 현실의 불평과 고통을 실감하는 가운데 소년기에 들어섰다. 이때 그는 〈5·4운동〉을 겪게 되는데 당시에 받았던 충격에 대하여 “봄 우레마냥 나를 꿈속에서 소스라쳐 깨어나도록 하였다”¹⁾고 했다. 그는 드디어 봉건적인 이념의 지배 속에 있는 불평등한 환경을 탈출하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

이다.

신문화운동이 바야흐로 진행되고 있던 당시에 파금은 성도외국어전문학교(成都外國語專門學校)에 입학했다. 이 근대식의 신식학교에서 16세의 파금은 군벌정부를 반대하는 시위, 동맹휴학 등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아나키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새로운 학설과 진위적인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현지에서 꾸리는 잡지 『반월(半月)』의 편집진에 주동적으로 접근하여 그 잡지의 전문 편집일꾼이 되었다.

16세의 나이에 잡지 『반월』의 편집생활을 시작한 파금은 이때 고(高)씨 성을 가진 한 조선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해후하게 된 계기는 세계어였다. 당시 잡지에서 세계어에 관한 글을 신고자 하였는데 마침 세계어 공부를 한 적이 있는 그 고씨 청년이 편집진 파금을 찾아왔던 것이다. 파금은 그 청년과 사귀는 과정에서 조선족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하며 솔직하고 또 자존심이 강했다”²⁾는 초보적인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또 파금은 어릴 때부터 조선인들이 겪은 고난과 투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에 대한 인상이 가장 깊었고, 안중근은 자신의 소년시절 숭배하던 영웅의 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좀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터이지만, 파금이 청년시절에 아나키즘에 심취했던 경력을 고찰할 때 안중근 의사를 숭배했던 사실 역시 중요한 하나의 전기적 배경으로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1925년 남경에서 동남대학(東南大學)의 부속고중을 졸업한 파금은 북경대학의 입학시험에 참가할 목적으로 북경에 갔다. 이때 그는 신문 부간(副刊)의 편집으로 지내고 있던 심(沈)씨 성을 가진 조선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하여 류(柳)씨 성을 가진 한 조선청년을 알게 되었다. 파금은 심씨는 자못 근엄하였지만 그가 소개한 류씨 청년은 아주 열정적이고 소탈하여 자신에게 조선의 애국지사들이 일본 침략자들과 투쟁하는 데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파금은 “처음으로 조선인민들의 간거하고 영웅한 투쟁을 알게

1) 巴金, 《巴金选集》第十卷, 四川人民出版社, 1982, p.65.

2) 巴金, 『探索与回忆』, 四川人民出版社, 1982, p.212.

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되었으며 조선의 혁명자들에 대해 줄곧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³⁾고 했다. 여기에서 파금이 말하는 두 조선청년은 바로 당시에 북경에서 『국풍보(國風報)』의 부간편집으로 있던 심용해(沈容海)와 그의 친구 류수인(柳樹人)이었다.⁴⁾

심용해(1904~1929)와 류수인(1905~1980)은 1925년 봄부터 북경 국민대학(國民大學)에서 북경대학 총장 채원배(蔡元培) 등과 흑기련맹(黑旗聯盟)을 조직하고 기관지 『동방잡지(東方雜誌)』를 시판하여 아나키즘 선전에 주력하고 있었다.⁵⁾ 그중 류수인은 도산 안창호의 독립운동단체의 성원이었으며 후에 도산과 함께 단체의 사무 때문에 길림에까지 동행한 일도 있으며,⁶⁾ 또한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인 노신(魯迅)의 작품을 가장 먼저 조선에 번역, 소개한 조선인이기도 하다.⁷⁾ 이러한 점들은 류수인이 파금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이 대개 당시 중국에 망명한 조선인 아나키스트들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파금이 만났던 조선인 가운데 가장 깊이 사귀었고 가장 오래 동안 연계를 가진 이는 류자명(柳子明)이다. 파금과 류자명은 사천사람 등몽선(鄧夢仙)이 상해 프랑스 조차지(租借地) 내에 꾸린 화광(華光)병원에서 초면을 가졌고, 류자명이 1930~1935년 립달(立達)학원 농촌교육과에 있는 기간 우정을 두터이 하게 되었다. 당시에 파금의 동생 리채신(李采臣)이 립달학원 농촌교육과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또 파금의 가까운 친구인 마종융(馬宗融)과 라세미는 류자명과 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류자명은 또 1938년과 1942년에 계림에 있을 때도 파금과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파금과 소산(蕭珊)의 감정의 발전을 줄곧 지켜 본 증인이었다. 1944년 파금이 자기가 소산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인편으로 특별히 류자명에게 알린 사실만으로도 그들 사이의 깊은 우정은 충분히 일별할 수 있다. 파금은 후에 류자명을 수 십 년간 학교와 농장에서 중국을 위하여 많은 원예영역의 인재를 배양한 園藝家로 높이 평가했다. 파금의 소설 『불(火)』 제1부에 나오는 조선민요 「아리랑」의 가사도 류자명이 제공해준 것이었고 파금은 류자명을 다른 한 작품에서 모델로 삼기도 했다. 전국이 해방된 1949년

3) 이상의 파금에 관한 내용은 바쑈, 앞의 책, pp.212~213 참조.

4) 류자명, 『나의 회억』, 룡녕인민출판사, 1984, p.159 참조.

5)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 『韓國아나키즘運動史(前編·民族解放闘爭)』, 1978, pp.296~297 참조.

6) 김시준, 「魯迅이 만난 韓國人」, 『中國現代文學』 第13號, p.145 참조.

7) 權赫律, 「춘원과 루쉰에 관한 비교문화적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이후 류자명은 여러 곡절을 거쳐 호남(湖南)농학원에 재직하다가 만년을 보냈는데 그때도 그들은 줄곧 연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파금과 류자명이 밝힌 바에 의하면 1938년 계림의 한 시 랑송 모임에서 「아리랑」을 불러 파금을 감동시켰던 金焰의 여동생 金煒녀사 역시 파금이 만났던 조선인의 한 사람이다.⁸⁾

이밖에 파금은 또 1952년 3월과 1953년 8월에 두 차례나 조선에 가서 생활 체험을 한 경력이 있다. 제1차 조선 행에서 7개월간, 제2차 조선 행에서 5개월간, 두 차례를 합해 파금은 1년을 훨씬 넘기는 동안 조선에서 현지 생활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 기간의 생활이 파금에게 있어서 젊은 시절 조선인들과의 교류 가운데서 얻었던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느낌을 더 한층 깊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파금은 귀국한 후, 어느 글에서 이러한 기록을 남겼다.

8년이래 나는 조선에 관한 꿈을 얼마나 꾸었는지 모른다. 지금도 나의 마음은 강력한 인력에 의해 그 영웅의 나라에로 이끌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조선에서 보낸 그 나날들을 말할 때마다 격양된 정서를 감추지 못한다.……내 어찌 길이 기념해야 할 그 소중한 나날들을 잊을 수 있으랴! 내 어찌 그때의 생활을 회억하지 않을 수 있으랴! 내 어찌 조선의 꿈을 자꾸 자꾸 떠올리지 않을 수 있으랴!⁹⁾

조선에 대한 파금의 이러한 감정은 곧바로 그의 창작으로 이어졌다.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솔직하고 진지하며 풍부한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다산의 작가인 파금은 단순히 문학의 어느 한 장르에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문학적 장치를 총동원하고 있었다. 다음 순서에서 조선에 관한 파금의 창작물을 통하여 이 점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8) 巴金, 앞의 책, pp.214~215 ; 류자명, 앞의 책, pp.156~163 참조.

9) 『巴金全集 11』, 人民文學出版社, 1990, pp.413~414.

2) 파금의 조선에 관한 창작물

전술한 바와 같이 파금은 많은 조선인들과의 교류를 가진 바 있으며, 연속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거의 1년 넘게 조선에서 생활한 체험을 갖고 있었다. 한 작가에게 있어서 이러한 체험은 그의 창작욕을 자극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생활체험들을 자신의 작품에 용해시키지 않을 수 없다. 파금은 1951년부터 1954년에 걸쳐 조선에 관한 문집을 세 권이나 엮어냈다. 『위문신과 기타(慰問信及其他)』(1951), 『영웅들과 함께 보낸 나날들(生活在英雄們中間)』(1952),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保衛和平的人們)』(1954)이 바로 그것이다. 통신, 르포, 편지 등 여러 가지 문체로 된 이 문집들은 바로 작가가 조선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에 대한 허구 없는 직접적인 발현이었다.

『위문신과 기타』는 파금이 조선에 가기 직전인 1951년의 글들을 묶은 것이다. 제목만 볼지라도 이 책자가 완전히 조선에 관한 글만은 아니란 점을 알 수 있는바, 그 가운데서 조선에 관한 내용의 글을 꼽는다면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에게 보내는 위문신과 함께 쓴 「조선인민군에게 드림(致朝鮮人民軍)」이다. 이 편지 형식의 글은 파금이 1950년 11월에 폴란드에서 열렸던 제2차 세계평화수호대회에 참석했을 때 조선의 대표 박정애(朴正愛) 여사의 발언에서 알게 된 당시 조선의 정형에 근거하여 집필한 것이다. 편지에서 작가는 박정애 여사를 통하여 조선민족의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외세 침입 때문에 겪고 있는 조선인민들의 수난과 그것을 극복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그들의 용감한 투쟁에 동정과 존경심을 보낸다고 했다.

11편의 글을 수록한 『영웅들과 함께 보낸 나날들』과 9편의 글을 수록한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은 각각 파금의 제1차, 제2차 조선 행에 관한 글들이다. 전자는 거의 통신 형식의 글들로 구성되었는데 작가의 말대로 제1차 조선 행에서 만났던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과 그들의 조선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것이었다. 후자는 대부분이 르포 형식의 글들로 구성되었는데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조선인민들이 폐허 위에서 억척스럽게 새로운 생활을 꾸리는 모습과 조선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과 같이 조선의 건설사업을 돕고 있는 중국인민 지원군전사들의 일부 사적들을 담고 있다.

이 세 문집의 글들을 파금이 조선에 관한 감성적인 인상 및 중국과 조선의 친선관계에 관한 내용들로 일관된 것, 즉 조선에 관한 작가의 체험들을 내면화시키기 직전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소설작품들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조선에 관한 파금의 소설작품은 조선에 관한 작가의 전술한 모든 체험들에 대한 형상적인 표현이 된다. 파금의 이 부류 소설작품을 창작년대 순서로 본다면 단편소설 「머리칼의 이야기(發的故事)」(1936), 『불』 제1부(1940), 단편소설집 『영웅의 이야기(英雄的故事)」(1953), 『명주와 옥희(明珠與玉姬)」(1956), 『이대해(李大海)」(1961)와 중편소설 『세 동지(三同志)」(1961) 등이 있다. 여기서 이 작품들에 대한 분석은 삼가고 간략한 소개에 그치기로 한다.

단편소설 「머리칼의 이야기」는 앞서 언급했던 류수인이 들려준 이야기에 근거하여 창작한 것이다. 작품에서 파금은 당시에 머리가 일찍 희게 되어 “백발청년”이라고 불리던 류자명을 작중인물 김(金)의 모델로 삼았다. 작중의 다른 인물 명(銘)은 라세미를 모델로 삼았는데, 이 작품에서는 “몇 가지 언어를 장악하고 몇 종류의 무기를 들고 몇 개 나라를 넘나들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는 조선혁명자의 투쟁정신을 형상적으로 구가했다.

1940년에 완성한 『불』의 제1부에서 파금은 상해를 무대로 활약하는 자성(子成), 아홉째(老九), 명성(鳴盛), 영언(永言) 등 조선의 아나키스트들이 매국역적을 처단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우는 형상을 부각하고 중국 동지를 엄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국제주의 정신에 대한 작가의 경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1956년의 『명주와 옥희』에 수록된 두 편의 단편소설은 모두 조선의 어린이들에 관한 작품이다. 작가는 사랑 어린 마음으로 전쟁가운데서 친인을 여의고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용감하고 열정적이고 활발한 낙천적인 모습을 잃지 않으며 조선인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주는 조선의 어린이들의 형상을 부각했다. 작품은 또 중국의 꼬마들이 조선의 그 꼬마들과 앞으로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가기를 바라는 작가의 절절한 바람을 함께 담고 있다.

그 외의 작품 『이대해』와 『세 동지』는 모두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과 조선인민들과의 친밀한 우정 등을 형상적으로 그려낸 것들이다. 여하튼 이상의 작품들은 모두 조선을 배경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통점

8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이 있는데 작품의 일차적인 성공을 이루는 데는 파금의 두 차례 조선 행의 생활 체험이 상당한 몫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파금은 1940년 『불』 제1부를 완성한 후 자신이 만났던 조선 친구들의 형상을 그려냈던 것으로 다소 위안을 가진다고 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불』 제4부를 집필하여 광복을 이룩한 후의 조선에 관한 작품을 창작할 데 관한 자신의 소원을 밝힌 바 있다. 단지 『불』의 제4부가 집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다면 파금은 마치 젊은 시절의 소원성취를 이루지 못했던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 그는 두 차례나 광복 후의 조선땅을 밟을 수 있었으며, 또한 광복 이후 조국을 지키고 건설하는 조선인민들을 형상적으로 표현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파금은 오히려 조선에 관한 자신의 창작 소원을 완전 성취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한 평판으로 될 것이다.

3. 결론

이상 지금까지 파금이 조선인, 조선땅과 접촉한 체험과 그것을 토대로 한 창작물들에 대하여 대충 살펴보았다. 본고는 단지 실증적인 고찰에 그친 것으로 그 “향아리”들에 대한 ‘클로즈 워딩’은 다른 기회로 기약하기로 한다. 조선과 조선인민에 대한 파금의 절절한 심성을 담은 다음의 인용으로 본고의 결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나는 그대들을 사랑한다, 나는 중국인민지원군을 사랑한다. 나는 또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인민을 사랑한다.”¹⁰⁾

10) 『巴金全集 14』, 人民文學出版社, 1990, p.190.